

도교육청, 학생 해외 문화체험 진행 '즐거움에 깨달음 더하다'

지난 17일부터 4박5일간
일본 오사카 등 찾아 탐방

싱가포르 해외 문화체험
참여 학생들도 24일 출발



전북도교육청 학생 해외 문화체험에 참여한 도내 학생들이 일본 오사카 성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해외 문화체험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생들이 해외에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사회·역사·자연 환경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소통역량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진로와 학습 동기를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지난 5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참가학생을 모집 일본의 역사교육·문화 교육·안전교육 등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체험은 교토 오사카 나라의 역사 문화적 장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00명의 학생들은 4박 5일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清水寺를 비롯해 금각사, 오사카성, 도다이지, 효류지 등 일본의 문화재를 관람하고 정지용·윤동주 시비가 있는 도시샤 대학교를 방문해 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일일 체험 일정을 마치고 모듬별로 모여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다음날 체험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등 유대감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일본 해외 문화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닌 많은 깨달음과 동기부여가 됐다"며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또 다른 100명의 학생들은 지난 24일 싱가포르로 출발했다.

/정은성 기자



25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 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 5명 · 도의회 추천 1명 · 교육감 추천 1명 등 총 13명
인권 보호 · 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 심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공개모집 5명·학생의회 추천 3명·교육단체 추천 3명·도의회 추천 1명·교육감 추천 1명 등 총 13명이며, 도교육청 소속 담임직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대상을 5명이나 포함시켰고, 더불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직능별·직능별 배정도 고려했다.

앞으로 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학생·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임기는 2025년 7월까지 2년간이고, 학생위원의 경우는 올 연말까지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권위원회는 전북교육의 인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돕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학교, 교육기관을 우선구매 촉진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교육·홍보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정착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학교기관에 협조 요청은 물론 매년 실적관리

및 구매율 저조 기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생산물 홍보 및 우수기관 시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지역생산물 이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4월에는 계약업무담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소개했다.

최신자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내 지역생산물 우선구매로 중소기업에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내달 3일부터 8일동안
전주캠퍼스 체육관서
격파·겨루기 등 펼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내달 3일부터 8일간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제21회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2008년 대한태권도협회 공인 품새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겨루기 종목은 승인받았다.

먼저, 8월 3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격파 부문에는 남녀 중·고등부에서 350여 명이 출전해 체공도약격파와 수지축회전격파, 수평축회전격파, 종합격파 등 고난도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어 1,300여 명이 출전하는 품새 부문은 8월 5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공인품새 개인전(남녀 각 18개부)·복식전(혼성 5개부)·단체전(남녀 각 5개부)과 자유품새 개인전(남녀 각 5개부)·복식전(혼성 3개부)·단체전(혼성 3개부)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특히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겨루기 부문은 8월 8일부터 3일간 남녀 고등부에서 900여 명이 출전한다.

조직위원장인 정희서 산학협력단장은 "차별화된 대회 운영을 통해 인재 발굴과 태권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개최식은 8월 5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이날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품새와 격파 등을 점목한 태권극 '공복'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모로코 대사관과 글로컬 대학 협력

전북대-모로코 대사관
교류 프로젝트 추진 협의
모로코 대사, 글로컬
대학위 공동위원장 맡기로

카타르 대사와 만나
카타르 국립대학과
교류 프로그램 추진기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난 20일 사막 하사디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관을 만나 전북대와 모로코왕국 대사관 간 교류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협의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 지정을 위해 '글로벌대학위원회'를 구성, 그 산하에 지역기관과 기업체가 참여하는 로컬지문위원회와 해외 우수 대학 총장 및 여러 국가 대사들이 참여하는 글로벌지문위원회를 두는 등 폭넓은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양 총장은 최근 모로코 왕국 대사와 카타르 하사디 주한 모로코 대사, 글로컬지문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 20일 사막 하사디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를 만나 전북대와 모로코왕국 대사관 간 교류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전북대와 모로코왕국 대사관은 과학 분야에서 양국 대학 간 북수전공과 교환학생 및 장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공동 연구

와 양국 대학 간 학회 및 세미나 기획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대학에 한국어학과와 이집트어학과를 각각 개설하고, 모로코와 한국에 언어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구축하는 등 언어와 문화적 측면의 교류협력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막 하사디 대사는 전북대 글로벌대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오는 10월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본 지정을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총장은 지난 21일 칼리드 알-하미르 주한 카타르 대사를 만나 카타르 국립대학과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식량안보,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교류에 뜻을 같이 하고, 점진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기업 등과 글로벌대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번엔 모로코 등 여러 국가 대사들이 함께하기로 해 우리대학 글로벌대학 30 사업 본 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지문위원회를 더욱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해 우리대학의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서 교육감 공약사업 '순항 중'

6월 말 현재 이행률 평균 40.6%... 안전 등은 초과 달성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서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40.6%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25%p 상승한 수치다.

분야별 이행률을 살펴보면 미래 39%, 책임 32.3% 안전 48.8% 자치

37.8%, 협력 56%, 공동체 39.2% 등이며, 특히 안전·협력·공동체분야는 이미 목표율을 초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176개 공약이 확인 지표 중 완료 99개, 정상추진 72개, 추진시기 미도래 5개로 부진 지표 없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추진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확충, 식생활환경 개선, 도교육청 재구조화 등이 있다.

또 디지털·AI 교육 거점 구축, 권역별 수혜지원센터 운영,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초중학생 구강건강진료 지원, 학생해외연수 등 72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약은 도민들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는 실천과 이행을 통해 공교육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19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위원장 최홍규)는 지난 21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공약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공약 이행 현황을 심의했다. /정은성 기자



제19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공약관리위원회를 열고,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심의했다.

서 교육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고객지원실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서 교육감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고객지원실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서 교육감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 제증명 서류를 문자로 미리 신청한 후 대기 시간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민원할 때 문자예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오늘부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하반기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립 유·초·중·고 및 교육기관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개선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081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립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에서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의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28일 전주를 시작으로 완주·익산·정읍 등 10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와 권리를 교육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리자 와 근로자가 같이 위험성을 발굴·개선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업재해보상보상제도의 이해 △위험성평가 및 예방대책 등으로, 현업업무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은성 기자